

(유)한성산기 기업 조사서

창립과정

(유)한성산기의 백대준 대표이사는 대전체고를 졸업한 후 충남대학교 체육학과를 전공하며 태권도와 스포츠 교육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일구어 온 아버지의 권유로 일찍 사업에 뛰어들었다. 첫 번째 도전은 작은 소기업 운영으로 시작했으나 1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스물네 살이던 1998년, (주)효성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성산업기계’라는 이름으로 재기에 나섰다. 이어 영풍정밀(주) 등과도 거래를 확대하며 기반을 다졌다. 이 시기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대표는 거래처를 발로 뛰며 찾고, 각 기업의 일 처리 방식과 담당자의 태도를 배우고, 그중 긍정적인 것들을 회사 운영에 적용하면서 경영자로서의 감각을 키워갔다.

2006년, 군산 산북동에 공장을 매입해 플랜트 사업을 시작하며 제조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예상밖에 많은 시행착오와 손실을 겪었지만 도리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인 모터와 펌프 제조가 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역량 있는 인재들을 모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마침내 2010년 4월 24일, 옥구농공단지에 신축 공장을 마련하고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유)한성산기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경험과 형의 성실함은 창업자에게 중요한 지침이자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정착기와 성장

(유)한성산기는 수중펌프, 양흡입펌프, 입축사류펌프, 수중전동기, 펌프수문을 주력으로 사업을 정착시켰다. 무간격 웨어링을 적용한 펌프와 펌프일체형 수문으로 특허를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신기술,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등 주요 인증을 잇따라 획득했다.

특히 금속 대신 탄소 소재 웨어링을 적용하여 펌프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동 가능한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장마철 전 사전점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난 안전에 기여하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48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여성 근로자가 28%, 청년(34세 이하)이 44%를 차지하며, 역량 중심의 인사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펌프 산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신사업 T.F.T를 꾸려 1년여 동안 다양한 사업을 탐색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농업법인 ‘한내담’을 발족하고, 2024년 8월부터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가공 제품개발과 판로 개척에 힘쓰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위기와 극복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계약의 부진까지 이어지며 존폐 위기도 맞았다. 대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버텼고, 놀랍게도 단 한 명의 퇴사자 없이 직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회사는 이 시기에도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았는데, 결국 2020년 말부터 인증 제품이 계약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2021년 2월에는 전사 차원에서 처음으로 ‘조직문화’를 주제로 토론하며 비전을 수립했다. 백대준 대표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얻은 영감을 ‘비전하우스’와 연결했고,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발전시켰다. 현재 이 비전은 5.1버전까지 리비전되었다. 이러한 조직문화 형성의 근간에는 ‘배움과 나눔’ 프로그램을 통한 전 직원의 성장지향 의식과 가치관 형성이 밑받침되어 개인의 성장과 기업 성장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

한성산기의 기술력은 재난안전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무급수 구동 가능한 펌프’가 특히 서울 지역에 다수 설치되었고, 우기철 전 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펌프 사전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전점검 현황 : 2023년 : 260대, 2024년 : 429대, 2025년 : 1,000대 이상 완료) 2025년 9월 7일은 군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던 날로, 침수된 도심의 복구작업에 나서서 119소방대와 함께 지역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한성산기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과제에 동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한성산기의 다음 신사업은 무엇이 될까? 우리의 성장이 어디로 뻗어가고 어디까지 미칠지, 사실 우리도 궁금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안목으로 기회를 찾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맺음말

(유)한성산기는 창립자의 도전정신, 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토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왔다. “고객은 안전한 삶, 직원은 행복한 삶”이라는 사명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앞으로도 안전과 행복을 지향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펌프에서 표고까지, 한성산기의 또 다른 도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펌프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한성산기는 펌프 제조업을 넘어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신사업 T.F.T를 꾸려 1년여 동안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월, 농업법인 ‘한내담’을 발족하며 농업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4년 8월부터는 표고버섯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신선 표고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통 판로를 개척하며 농업법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중입니다.

한성산기의 도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표고버섯 사업은 그 연장선에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또 다른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표고 미식의 경점에 오르다”
모두의버섯 한내담





본 사 - 1공장

주 소 전북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26 (옥구 농공단지 내)

전 화 063-441-9100

팩 스 063-441-9199

제조 1공장(펌프, 전동기, 게이트 펌프, 수문, 권양기, 제진기 제조)

대지면적 4,742.5m²



서 천 - 2공장

주 소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676 (종천공단길 62번길 42-13)

전 화 041-953-9002 팩 스 041-953-9003

제조 2공장(목형보관, 수문, 권양기, 대형펌프, 전동기 제조, 성능시험)

대지면적 8,068m²